≪老乞大≫語彙考(二)*

— 利家・田地・地面・地頭・可知・時・裏・處

李 陸 禾**

<목 차>

1. 緖論
2. 利家
3. 田地・地面・地頭
 3.1 田地
 3.2 地面
 3.3 地頭
4. 可知
5. 時・裏・處
 5.1 時
 5.2 裏
 5.3 處
6. 結論

1. 緖論

≪老乞大≫는 高麗末부터 朝鮮時代에 이르기까지 중국어 학습을 위해 쓰인 교재이다. ≪老乞大≫와 그 諺解書들은 國語史 연구 자료와 漢語史 연구의 중요자료로 이미 잘 알려져 있고 내외적으로 많은 연구가 선행되었기 때문에 더 이상 설명은 필요 없을 것이다. 다만 漢文原本인 ≪老乞大≫가 가진 漢語史 자료로서의 가치를 정당하게 평가를 받지 못하고, ≪老乞大≫가 반영하고 있는 漢語의 성격을 규명한 연구가 많이 미흡하다고 보고 이에 先人들의 연구 성과를 토대로 하여 ≪老乞大≫가 반영하는 漢語의 성격과 漢語史에서의 위치를 가늠해보고자 하는 것이다.

志村良治는 그의 저서에서[1] "≪老乞大≫, ≪朴通事≫ 두 책의 언어는 주로 大都를 중심으로 한 山東, 河北, 遼寧 등의 북방 緣海地域에서 통용되었다. '知他' '因此上' 등의 용법 외에도 過去 漢語에서 본 적이 없는 이른바 蒙文直譯體의 언어현상들이 나타나고 있다"[2]고 하면서 11개의 個別的 事例[3]를 들고 있다. 이에 본 연구자는 志村良治가 제시한 11개의 個別的 事例에서 '知他', '因此上', '人名+上', '怎麽', '根底' 등의 語彙를 선택하여 당시의 다른 문헌에서 쓰이고 있는 用例들과 상호 비교 등의 고증을 통하여 ≪老乞大≫에서 쓰이고 있는 어휘와 어법들은 이른 바 蒙文直譯體의 語法이 아닌 當時에 일반적으로 널리 쓰였고, 漢語語彙史의 變遷과 發展過程을 추적할 수 있는 寶庫임을 입증하고자 하여 ≪老乞大語彙考≫를 발표한 바 있다.[4]

* 이 연구는 2009년도 광주대학교 대학 연구비의 지원을 받아 수행되었음.
** 光州大 中國學部 敎授.

1) 志村良治 著, 江藍生・白維國譯, ≪中國中世語法史研究≫(中華書局), 382쪽: "兩書的語言主要通用于北方以大都爲中心的山東、河北、遼寧等靠海的地區。除了"知他""因此上"等說法之外, 也出現了過去漢語裏沒有見過的所謂蒙文直譯體的語法。"

2) 近來 先學들의 활발한 연구에 ≪老乞大・朴通事≫에 대한 評價는 提高되고 있으나, 아직도 일부에서는 '실제로 사용되지 않았던 蒙文直譯體'라는 貶下의 視覺을 볼 수 있다. 鄭光譯註解題≪原本老乞大≫(04年)의 序文에서 다음과 같은 내용을 볼 수 있다: "또 한 분의 토론자인 나카시마 교수가 ≪老乞大≫의 중국어가 蒙文直譯體의 문장이어서 실제 회화에는 쓰이지 않았다는 주장이 있는데 그에 대한 필자의 생각을 묻는 질문이 있었다. 이것은 3년 전에 일본 京都에서 ≪老乞大≫에 대하여 발표할 때에 이미 거론이 되었다."

3) (1) 你誰根底學文書來? 我在漢兒學堂裏學文書來。(老 3・9)
 (2) 錢是你上有, 物在我根底。(朴 252・3)
 (3) 做滿月老娘上賞銀子段匹。(朴 105・3)
 (4) 誰是舅舅上孩兒? 誰是姑姑上孩兒? (老 28・5)
 (5) 我漢兒人上學文書。因此上, 些小漢兒言語省的。(老 3・5)
 (6) 千辛萬苦, 養大成人, 因此上古人道, 養子方知父母恩。(朴 106・7)
 (7) 我不會漢兒言語, 又不會做飯。(朴 166・2)
 (8) 你是高麗人, 學他漢兒文書怎麽。(老 8・4)
 (9) 那狗骨頭知他那裏去。(朴 65・3)
 (10) 知他, 那話怎敢說, 天可憐見, 身己安樂時也到。(老 3・2)
 (11) 相公可憐見, 我的不是了。(朴 153・6)

4) 拙稿, <老乞大語彙考>, ≪中國語文論叢≫ 39輯, 2008.12.

www.kci.go.kr

本 硏究는 바로 그 後續의 補完적인 성격의 것이다. 즉 ≪老乞大≫에서 쓰이고 있는 어휘의 고찰을 통하여 ≪老乞大≫가 반영하고 있는 漢語의 성격을 규명하고, 漢語史에서 점하는 위치를 파악하고자 하는 것이 그 첫 번째 意圖이고, 旣存의 諸諺解書와 譯註書 등에서 볼 수 있는 誤譯이나 부적절한 註釋에 대한 改進이 그 두 번째 目的이다.

本 硏究는 現存의 最古本으로 보이는 1346년경[5] 元나라 시대에 編纂된 ≪原本老乞大≫[6]本을 기본 텍스트로 하였고, 1515년 崔世珍이 最初로 ≪老乞大≫[7]를 諺解한 ≪飜譯老乞大諺解≫[8]本과 제일 늦은 시기인 1795년에 改修된 ≪重刊老乞大≫를 각각 선택하여 참고하였다. 즉 本稿는 ≪老乞大≫系列書의 漢語語彙만을 연구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現存 最古의 ≪原本老乞大≫本를 선택하였고, 그 中間의 改修本 가운데서 漢語原文에 대한 理解와 풀이의 편리함을 위하여 諺解本인 ≪飜譯老乞大諺解≫本을 택하였으며, 제일 늦은 시기에 改修된

5) 李泰洙, ≪老乞大四種版本語言硏究≫(語文出版社, 2003年).

6) ≪原本老乞大≫는 1998년 경북대학교 南權熙교수가 최초로 古本≪老乞大≫를 發見한 후, 정리를 거쳐 2000년 경북대학교 출판부에서 ≪元代漢語本老乞大≫라는 서명으로 출판되었고, 같은 해 北京外語教學與硏究出版社에서 ≪原刊老乞大硏究≫이라는 書名으로 각각 출판되었다. 2002년에 北京外語教學與硏究出版社에서 修訂本(鄭光 主編)을 다시 出版하면서 ≪原本老乞大≫라고 改名을 하였다. 이에 或者는 '舊本老乞大' 또는 '元本老乞大', '古本老乞大' 等으로 부르고 있는데, 최근 발견된 ≪原本老乞大≫가 이른 바 崔世珍이 ≪老乞大集覽≫等에서 언급한 '古本', '舊本'인지는 알 수가 없고, 또한 ≪老乞大≫의 최초의 原本인지도 알 수는 없다. 다만 鄭光이 최근 중국과 한국에서 각각 ≪原本老乞大≫라고 書名으로 解題와 譯註를 하였고, 본 논문도 鄭光 譯註解題의 ≪原本老乞大≫(김영사, 2004년)에서 原文과 譯註를 참고하였음으로 이에 ≪原本老乞大≫라는 書名을 쓰기로 하였다.

7) ≪老乞大≫(1480년)는 ≪原本老乞大≫가 발견되기 이전까지는 최고본이었으나 ≪原本老乞大≫本이 세상에 드러나고, 또한 ≪老乞大≫本은 "≪原本老乞大≫本의 改修本일 것이다"라고 하여 ≪刪改老乞大≫ 또는 ≪(修正本)老乞大≫ 등으로 부르고 있다. ≪老乞大諺解≫는 조선 顯宗(1670 전후) 때 朴世華 등이 ≪老乞大≫本을 藍本으로 하고 ≪飜譯老乞大諺解≫의 諺解를 改修한 新諺解本인 것이다. 이에 본고는 ≪老乞大≫라는 서명을 그대로 썼다.

8) ≪飜譯老乞大諺解≫는 ≪老乞大≫를 中宗10년(1515년) 崔世珍이 諺解한 것으로上下 兩卷으로 名稱은 원래 그대로 ≪老乞大≫로 되어 있으나 그렇게 되면 漢語本의 名稱과 구별이 되지 않고, 그렇다고 ≪老乞大諺解≫로 하면 重刊本과의 혼란이 생기므로 이에 四聲通解에 붙어있는 '飜譯老乞大朴通事凡例'란 기록에 의지하여 ≪飜譯老乞大≫로 通稱하게 된 것이다. ≪老乞大≫를 諺解한 또 다른 ≪老乞大諺解≫本(1670年)이 있으나, 漢語本文의 내용은 일부 字形을 제외하고는 내용이 거의 ≪飜譯老乞大≫와 일치한다고 한다. 이에 本稿는 ≪老乞大≫의 漢語原文이 그대로 보존되어 있으며 또한 最初의 諺解本이고 원문의 번역이나 이해에 참고를 위하여 ≪飜譯老乞大諺解≫本을 藍本으로 택하였다.

≪重刊老乞大≫本을 선택하였다.

2. 利家

'利家'의 用例는 ≪原本老乞大≫[9]와 ≪老乞大≫[10]에서 각각 한 번의 用例가 보일 뿐 ≪朴通事≫에서도 전혀 볼 수가 없다. '利家'에 대한 ≪飜譯老乞大≫[11]에서는 '흥정 바치(장사꾼, 상인)'로 언해가 되어 있고, ≪老乞大諺解≫에서도 '흥정 바치'로 언해되고 있지만, 개정본인 ≪重刊老乞大諺解≫[12]에서는 '外行'(아래 예문 3번)으로 바꾸어 졌음을 볼 수 있다.

9) ≪原本老乞大≫는 1998년 경북대학교 南權熙교수가 최초로 古本≪老乞大≫를 發見한 후, 정리를 거쳐 2000년 경북대학교 출판부에서 ≪元代漢語本老乞大≫라는 서명으로 출판되었고, 같은 해 北京外語教學與硏究出版社에서 ≪原刊老乞大硏究≫이라는 書名으로 각각 출판되었다. 2002년에 北京外語教學與硏究出版社에서 修訂本(鄭光 主編)을 다시 出版하면서 ≪原本老乞大≫라고 改名을 하였다. 이에 或者는 '舊本老乞大' 또는 '元本老乞大', '古本老乞大' 等으로 부르고 있는데, 최근 발견된 ≪原本老乞大≫가 이른바 崔世珍이 ≪老乞大集覽≫等에서 언급한 '古本', '舊本'인지는 알 수가 없고, 또한 ≪老乞大≫의 최초의 原本인지도 알 수는 없다. 다만 鄭光이 최근 중국과 한국에서 각각 ≪原本老乞大≫라고 書名으로 解題와 譯註를 하였고, 본 논문도 鄭光 譯註解題의 ≪原本老乞大≫(김영사, 2004년)에서 原文과 譯註를 참고하였음으로 이에 ≪原本老乞大≫라는 書名을 쓰기로 하였다.

10) ≪老乞大≫(1480년)는 ≪原本老乞大≫가 발견되기 이전까지는 최고본이었으나 ≪原本老乞大≫本이 세상에 드러나고, 또한 ≪老乞大≫本은 ≪原本老乞大≫本의 改修本일 것이라고 하여 ≪刪改老乞大≫ 또는 ≪(修正本)老乞大≫ 등으로 부르고 있다. ≪老乞大諺解≫는 조선 顯宗(1670 전후) 때 朴世華 등이 ≪老乞大≫本을 藍本으로 하고 ≪飜譯老乞大諺解≫의 諺解를 改修한 新諺解本인 것이다. 이에 본고는 ≪老乞大≫ 라는 서명을 그대로 썼다.

11) ≪飜譯老乞大諺解≫는 ≪老乞大≫를 中宗10년(1515년) 崔世珍이 諺解한 것으로 上下 兩卷으로 名稱은 원래 그대로 ≪老乞大≫로 되어 있으나 그렇게 되면 漢語本의 名稱과 구별이 되지 않고, 그렇다고 ≪老乞大諺解≫로 하면 重刊本과의 혼란이 생기므로 이에 四聲通解에 붙어있는 '飜譯老乞大朴通事凡例'란 기록에 의지하여 ≪飜譯老乞大≫로 通稱하게 된 것이다. ≪老乞大≫를 諺解한 또 다른 ≪老乞大諺解≫本(1670年)이 있으나, 漢語本文의 내용은 일부 字形을 제외하고는 내용이 거의 ≪飜譯老乞大≫와 일치한다고 한다. 이에 本稿는 ≪老乞大≫의 漢語原文이 그대로 보존되어 있으며 또한 最初의 諺解本이고 원문의 번역이나 이해에 참고를 위하여 ≪飜譯老乞大諺解≫本을 藍本으로 택하였다.

12) ≪重刊老乞大諺解≫, 奎章閣圖書(도서번호2049), 影印本.

www.kci.go.kr

1) 你休這般胡索, 倒隔了你買賣。俺不是利家, 這緞子價錢俺都知道。≪原老≫ 27a [13]

2) 你休這般胡討, 倒誤了你買賣。我不是利家, 緞子價錢, 我都知道。≪飜老≫下 27a [14]

네 이리 간대로 바드려 말라, 도로혀 네 흥졍을 머믈울이로다. 내 흥졍 바치 아니 라도, 이 비단 갑슬, 내 다 아노라.

3) 離胡啊, 這樣的價錢倒悞了你的賣買。我不是外行, 這緞子價錢我都知道。≪重老≫下 25b [15]

4) 利家, 音義云不會賣買的。會賣買的便叫杭家。今按: 利家亦是市行之人. 杭作行是. 漢俗呼市廛曰鋪行, 曰行市, 行音杭。≪老集下: 2a－7≫

'利家'는 장사를 잘하지 못하는 사람을 뜻한다. 장사를 잘하는 사람은 '杭家'라고 부른다. 편집자주: '利家'역시 市廛사람이다. '杭'은 '行'이 옳다. 중국에서는 市廛을 俗稱 '鋪行', '行市'라고 하며 '行'은 '杭'으로 발음 한다.

그러나 ≪老乞大集覽≫[16]에서(위의 예문 4번)는 '利家'를 '不會賣買的(장사를 잘하지 못하는 사람)'으로, '杭(行)家'는 '會賣買的(장사를 잘하는 사람)'으로 풀이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현대중국어[17]에 있어 '行家'의 의미는 '內行人(전문가)'[18]을 뜻하고, 근대의 元明時代 즉 ≪老乞大≫ 시대에서도 그 쓰임이 현재와 별 차이가 없어 보인다.[19] 그러나 '利家'에 대한 풀이, 즉 사전에서 표제

13) 本稿는 譯註 등의 편리함 때문에 鄭光 譯註解題의 ≪原本老乞大≫本을 藍本으로 삼았고, 또한 副本으로는 汪維輝 編, ≪朝鮮時代漢語教科書叢刊≫(中華書局, 2005) 2卷의 影印本을 참고하여 교정을 하였다. ≪原老≫ 27a은 上記書 '影印本 27쪽의 a면'을 말함이다.

14) 본 논문에서는 편의상 ≪飜譯老乞大≫를 ≪飜老≫라고 표기하기로 한다. ≪飜老≫下 27a는, '≪飜譯老乞大≫ 下卷 27쪽 a면, 즉 27쪽 앞면'을 나타내는 말이다.

15) 본 논문에서는 편의상 ≪重刊老乞大諺解≫를 ≪重老≫라고 표기하기로 한다. ≪重老≫下 25b는, '≪重刊老乞大諺解≫ 下卷 25쪽 b면, 즉 25쪽 뒷면'을 나타내는 말이다.

16) 本稿에서는 奎章閣叢書第八(제446號)에 수록된 老乞大集覽(上下)와 單子解(影印本)를 참고로 하였고, 鄭監 監修, 國語史資料硏究會 譯註, ≪譯註飜譯老乞大≫(太學社, 1995)에 정리된 ≪老乞大集覽≫을 主原典으로 삼았다. 同書凡例에는 다음과 같이 설명되어 있다: "1. 原典(text)으로는 李丙疇 編校의 ≪老朴集覽考≫를 사용했고 보조 자료로 台北 聯經出版公司에서 펴낸≪老乞大諺解・朴通事諺解≫에 들어있는 ≪老乞大集覽(上下)≫와 單子解를 참조하였다. 2. ≪老朴集覽≫ 중 單子解, 累字解, 그리고 老乞大集覽의 중국어 어휘들을 모아 가나다順으로 정리하였다. ....." 이에 본고에서 인용한 ≪老朴集覽≫은 '태학사(1995年)'本임을 밝혀둔다.

17) 漢語史의 區分은 일반적으로 현대는 清代 中葉부터 현재까지를 말하고, 唐代에서 清初까지를 近代로 본다.

18) ≪現代漢語詞典≫(修訂本)(商務印書館, 2001).

어로 채택하여 풀이한 사전을 찾을 수가 없었다. 이에 楊聯陞은[20] '利家'가 元明時代에 통용되었던 말임을 전제하고, '利家'는 발음이 유사한 '戾(li)家' 또는 '隸(li)家'에서 借音되어 통용되고 있음을 말하고 있다.

楊聯陞은 또 現代漢語에서 '外行'이라는 의미를 가지는 '力把', '力笨', '劣把'[21] 등의 어휘를 제시하였는데, 그러나 같은 의미를 지닌 '戾家'[22], '利巴'[23], '力巴'[24], '力把'[25], '劣把'[26] 등과 같은 어휘들은 이미 ≪老乞大≫ 시대에 쓰여지고 있었음을 당시의 다른 문헌에서 찾아 볼 수가 있다.

≪老乞大≫에서 쓰고 있는 '利家' 또한 다른 많은 '外行'의 의미로 쓰이고 있는 '戾家', '利巴', '力巴', '力把', '劣把'와 마찬가지로 그 당시에 일반적으로 통용되었던 어휘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飜老≫에서의 '我不是利家'라는

19) 行家, 也作 '當行'、'當行家'。指對某方面熟練, 擅長, 內行。≪曲洧舊聞≫ 卷五: "某雖工于語言, 也不是當行家。" ≪貴耳集≫ 卷上: "文人才士無以自見, 碌碌無聞者雜進。三十年間, 詞科又罷, 兩制皆不是當行。京彦云戾家是也。" ≪京德傳燈錄≫ 卷十六: "寶保禪師, 耕夫置玉樓, 不是行家作。" 龍潛庵 編著, ≪宋元語言詞典≫(上海辭書出版社, 1985), 322쪽.

20) 楊聯陞, <老乞大朴通事裏的語法語彙>, ≪東方學志≫, 1955年: "行家利家, 似是元明時代通行語。但利家'利字的寫法, 不知以何爲正'明寧獻王朱權≪太和正音譜≫云: '..... 良家子弟所扮雜劇, 謂之**行家**生活(按: 指非伎人出身者所扮演的雜劇)。娼優所扮者, 謂之**戾家**把戲(按: 指伎人出身者所扮演的雜劇)。良人貴其恥, 所扮者寡。今少矣。反以娼優扮者謂之**行家**。失之遠也。..... 他不過是奴隸之役, 供笑獻勤 .....' '爲奴隸之役'幾個字, 可以注意。明唐寅≪六如畵譜≫ 卷三引王思善: '趙子昂問錢舜擧曰: 如何是士夫畵。舜擧答曰, **隸家**畵也。觀之王維 ..... 皆士夫之畵也 .....。'" 也許'**隸家**'是正字, 可能本意是隸屬, 付隸之意。明何良俊≪四友齋畵論≫說: " 我朝善畵者甚多。若**行家**當以戴文進第一, ...**利家**則以沈石田第一, ...。"

21) 同全書: "現代口語, 管外行叫'力把'(也有人寫'力笨', '劣把'。)≪北方俗語詞典≫頁112有'離八手', '離把頭'。"

22) 戾家: 外行的, 也指外行的人. ≪貴耳集≫ 卷上: "文人才士無以自見, 碌碌無聞者雜進。三十年間, 詞科又罷, 兩制皆不是當行。京彦云戾家是也。" 宋・耐得翁, ≪都城紀勝・四司六局≫: "常諺曰: 燒香點茶, 掛畵揷花, 四般閑事, 不許戾家。" 龍潛庵 編著, ≪宋元語言詞典≫(上海辭書出版社, 1985), 562쪽.

23) 利巴: 外行。≪醒世姻緣傳≫六三回: "這樣南京的雜貨原是沒有行款的東西, 一倍兩倍, 若是撞見一個利巴, 就是三倍也是不可知的。" 高文達 主編, ≪近代漢語詞典≫(智識出版社, 1992), 489쪽.

24) 力巴: 生手, 外行。≪兒女英雄傳≫六回: "女子見這般人渾頭渾腦, 都是些力巴。" 吳士勛・王東明 主編, ≪宋元明淸百部小說詞語大辭典≫(陝西教育出版社, 1992), 595쪽.

25) 力把: 外行。≪兒女英雄傳≫十一回: "行家莫說力把話, 你難道沒帶着眼睛, 還要問'却是如何'。" 許少峯 主編, ≪近代漢語詞典≫(團結出版社, 1997), 689쪽.

26) 劣把: 外行。也作'力把'。≪兒女英雄傳≫十七回: "咱們這裏雖說不短人撻, 都是劣把。" 許少峯 主編, ≪近代漢語詞典≫(團結出版社, 1997), 706쪽.

www.kci.go.kr

말을 ≪老乞大集覽≫의 풀이를 빌어 '我不是不會(做)賣買的'라고 할 수가 있을 것이고, 이것이 곧 改修된 ≪重刊老乞大諺解≫의 '我不是外行'과 같은 말이 되는 것이다. 그렇다면 '흥정 바치(장사꾼, 상인)'로 諺解된 ≪飜譯老乞大≫나 ≪老乞大諺解≫의 풀이는 잘못되었다고 본다. 특히 ≪老乞大集覽≫에서 "利家 또한 市廛사람이다(今按: 利家亦是市行之人)"라는 풀이를 주목할 필요가 있겠다.

3. 田地・地面・地頭

3.1 田地

現代漢語에서의 '田地'는 일반적으로 '논밭', '경작지'를 뜻하고 있지만, 元・明時代에서는 '地方', '處所'(아래 예문 1번)의 의미로 쓰이기도 하고, 또한 距離의 '路程'(아래 예문 2, 3번)의 의미를 나타내는 말로도 쓰이고 있음을 볼 수 있다. ≪原老≫에서 '田地'의 어휘는 총 11번이 쓰이고 있는데, 그 가운데 '地方', '處所'의 의미로 쓰인 횟수는 10번(아래 예문 4번)이고, '路程'의 의미로 쓰인 경우는 딱 한 번(아래 예문 6번) 볼 수가 있다.

1) 有那同州是個要害**田地**, 須索個好伴當每去据守。≪五代史・梁上≫ 27)
2) 朝官, 你不要鬧, 我與你一個銀子, 借這塊**田地**, 等俺歇息咱。元・鄭廷玉, ≪看錢奴≫第三折
3) 貧僧非是凡僧, 我是個禪和尙, 兩頭見日, 行三百里**田地**哩。元・鄭廷玉, ≪忍字記≫第一折 28)
4) 咱這高麗言語, 只是高麗**田地**裏行的。過的義州, 漢兒**田地**來, 都是漢兒言語。≪原老≫ 2b
5) 我這高麗言語, 只是高麗**地面**裏行的。過的義州, 漢兒**地面**來, 都是漢兒言語。≪飜老≫上 5b
6) 咱每今夜那裏宿去? 咱每往前行的十里來**田地**裏, 有箇店子, 名喚瓦店。≪原老≫ 3a
7) 咱們今夜那裏宿去? 咱們往前行的十里來**田地**裏, 有箇店子, 名喚瓦店。≪飜老≫上 10a
8) 咱們今夜那裏去住? 咱們往前走, 十多里**路**, 有個店, 名叫瓦店。≪重老≫上 9a

27) 劉堅・江藍生 主編, ≪元語言詞典≫(上海教育出版社, 1998), 316쪽
28) ≪漢語大詞典≫(漢語大詞典出版社, 1991)

그러나 ≪飜老≫에서는 '田地'의 쓰임은 ≪原老≫와는 달리 딱 한 차례(위의 예문 6번)의 用例를 볼 수가 있었는데, '路程'의 의미로 쓰이고 있었다. ≪原老≫에서 '地方', '處所'를 나타내는 의미로 쓰였던 '田地'는 ≪飜老≫에서는 모두 '地面'(위의 예문 5번)이 그 자리를 대신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그리고 ≪原老≫나 ≪飜老≫에서 '路程'의 의미로 쓰이고 있었던 '田地'의 이러한 쓰임은 ≪重刊老乞大≫에서는 '十多里路'의 '-路'로 改修되어 있었다. '田地'의 용례는 ≪朴通事諺解≫에서도 두 번 볼 수 있었는데, 하나는 '路程'의 뜻으로(아래 예문 9번), 다른 하나는 '地方', '處所'를 나타내는 의미로(아래 예문 10번) 쓰이고 있었다.

9) 往回二千里**田地**, 到那里住三个月, 納房錢空費了。≪朴諺≫上 53b
10) 干淨**田地**上樹底下拴着。喂的好着。≪朴諺≫上 43b

그러나 ≪原老≫나 ≪飜老≫에서 距離의 '路程', '路途'을 나타내는 말에는 '田地'보다는 '地'(아래 예문 11-14번) 또는 '路'(아래 예문 15-17번)가 주로 사용되고 있었음을 볼 수 있다.

11) 若過去了呵, 那壁有二十里**地**無人家。≪原老≫ 3b
12) 這裏到京裏, 有幾程**地**, 這裏到京裏, 還有五百里之上。≪飜老≫上 10b
13) 你這店西, 約二十里來**地**, 有一坐橋塌了來。≪飜老≫上 26a
14) 離閣有多少近遠, 離閣有一百步**地**。≪飜老≫上 48b
15) 這裏到那裏, 演裏有七八里**路**。≪原老≫ 17a
16) 這裏到夏店有多少**路**? 敢有三十里多**地**。≪飜老≫上 59b
17) 這裏到那裏, 還有七八里**路**。≪飜老≫上 60a

www.kci.go.kr

3.2 地面

≪老乞大≫ 시대에서 '地面'은 '地表面'[29]이라는 뜻 외에도 '地區', '地方'[30]을 나타내는 말로 쓰이기도 하였고, 간혹 '轄境(관할지역)'[31] 등의 의미로 다양하게 쓰였지만, ≪原老≫나 ≪飜老≫에서는 대부분 '地方', '地區'의 의미로 쓰이고 있었다(아래 예문 2-5번). 諺解 또한 모두 '짜(땅)', '짜ㅎ', '짜해(곳에)' 등으로 풀이하고 있다.

1) 咱這高麗言語, 只是高麗**田地**裏行的。過的義州, 漢兒**田地**裏來, 都是漢兒言語。≪原老≫ 2a
2) 我這高麗言語, 只是高麗**地面**裏行的。過的義州, 漢兒**地面**來, 都是漢兒言語。≪飜老≫上 5b
→ 我這朝鮮話, 只可在朝鮮**地方**行得去, 過了義州, 到了中國**地方**, 都是官話。≪重老≫上 5a
3) 我是高麗人, 漢兒**地面**裏不慣[32]行。≪飜老≫上 7b
→ 我是朝鮮人, 中國**地面**素來行不慣。≪重老≫上 7a
4) 你高麗**地面**裏沒井阿怎麼? ≪飜老≫上 36a
→ 你們朝鮮**地方**, 有井沒有? ≪重老≫上 32a
5) 我買些羊, 到涿州**地面**賣去。≪飜老≫下 21a
→ 我買些羊, 到涿州**地方**去賣。≪重老≫下 20a
6) 他是高麗人, 從高麗**地面**裏來, 他們高麗**地面**, 守口子渡江處的官司, 比咱們這裏一般嚴。≪飜老≫ 上51a
→ 他是朝鮮人, 從朝鮮**地方**來, 他那裏口子渡江處, 有官把守着, 比咱們這裏一般嚴緊。 ≪重老≫ 上51a

29) ≪元史・天文志一≫: "混天儀也, 其制以銅爲之, 平設單環, 刻周天度, 畫十二辰位, 以準地面。" ≪漢語大詞典≫(漢語大詞典出版社, 1991).
30) 元・缺名, ≪鴛鴦被≫四折: "如今來到洛陽地面, 張千, 是甚麼人吵鬧, 與我拿將過來。" 許少峯 主編, ≪近代漢語詞典≫(團結出版社, 1997), 269쪽. ≪朱砂担≫楔子: "孩兒待將些小本錢, 到江西南昌地面, 做些賣買。" 龍潛庵 編著, ≪宋元語言詞典≫(上海辭書出版社, 1985), 290쪽.
31) ≪古今小說≫ 卷六: "這兗州, 與河北逼近, 河北便是後唐李克用地面, 所以梁太祖特着親信的大臣鎭守。" 許少峯 主編, ≪近代漢語詞典≫(團結出版社, 1997), 269쪽.
32) 慣: 熟練, 擅長。關漢卿, ≪謝天香≫ 一折: "能吹彈, 好比人每日常看伺, 慣歌謳, 好比人每日常差使。" 許少峯 主編, ≪近代漢語詞典≫(團結出版社, 1997), 426쪽.

앞에서 언급한 바처럼 ≪原老≫에서 '地方', '處所'의 의미로 쓰였던 '田地'가 ≪飜老≫에 이르러서는 모두 '地面'으로 나타나고(위의 예문 1번과 2번 비교), 또 다시 ≪飜老≫에서의 '地面'은 ≪重刊老乞大≫에 이르러서 대체적으로 '地方'으로 改修되어 나타나고 있음을 볼 수가 있다. 그러나 위의 예문 3)번에서처럼 ≪重刊老乞大≫에서도 여전히 '地面'이 사용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現代中國語에서 '地面'은 일반적으로 '地的表面', '(집이나 건물 등의) 흙바닥; 마룻바닥; 시멘트바닥', '(행정구역의)地區', '當地'[33] 등의 의미로 쓰이고 있다.

3.3 地頭

現代中國語에서는 '地頭'를 '田地的兩頭(밭 양끝머리)'로 사용하고, 일부 方言에서는 '目的地' 또는 '本地方; 當地' 등의 의미로 쓰이고 있는 用例를 찾을 수 있다[34]. 그러나 ≪老乞大≫ 시대에 '地頭'가 '本地方', '當地'[35]의 의미로 흔히 쓰이고 있었던 語彙였음을 ≪老乞大≫에서 뿐만 아니라 그 時代의 다른 문헌에서도 찾아 볼 수가 있다. 아래의 예문 1)번의 '地頭'는 다른 문헌에서 볼 수 있었던 '田地的兩頭'의 뜻으로 쓰인 用例이고, 나머지 2)번에서 6)번은 모두 ≪老乞大≫에서 쓰이고 있는 '本地方, 當地' 등의 의미로 쓰이고 있는 用例이다.

1) 天天都是在**地頭**上做歇馬凉亭, 什麼奇奇怪怪的事不見呢! ≪紅樓夢≫三九回
2) 孩兒路上在意, 山峻難行, 到**地頭**便稍信來, 與我知之。≪淸平山堂話本≫[36]

33) 曹禺, ≪日出≫, 第一幕: "告他們! 告誰呀! 他們都跟地面上的人有來往, 怎麼告?" ≪漢語大詞典≫(漢語大詞典出版社, 1991).
34) ≪現代漢語詞典≫(修訂本)(商務印書館, 1996), 274쪽: "地頭: (1) 田地的兩端: 請大家在地頭休息一會兒。(2)〈方〉目的地: 快到了地頭, 你準備下車吧。(3)〈方〉(-兒)本地方; 當地: 你地頭兒熟, 連繫起來方便。"
35) 地頭: 應是'當地, 就地'之意。顧學頡・王學奇, ≪元曲釋詞≫ 卷一(中國社會科學出版社, 1983), 448쪽: "地頭鬼, 謂勾引外地流氓, 爲害鄉里的無賴。……現在還有'地頭蛇'的說法, 意指當地的壞人, 故'地頭'、'地裏'、'地土'都有當地、就地之意。"

www.kci.go.kr

3) 恁那綾絹綿子, 就**地頭**多少價錢買來? 到王京多少價錢賣? ≪原老≫ 4b
4) 你那綾絹綿子, 就**地頭**多少價錢買來? ≪飜老≫上 13b
→ 你那綾絹涼花, 在**本地**多少價錢買來? ≪重老≫上 12a
5) 這緞子**地頭**是那裏的? ≪飜老≫下 29a
→ 這紬子**地頭**是那裏的? ≪重老≫下 27b
6) 這布都是**地頭**織來的。≪飜老≫下 61b
→ 這布都是**本地方**織來的。≪重老≫下 57b

≪原老≫나 ≪飜老≫에서 '地頭'의 출현은 각각 3번으로, 모두 '本地', '當地'의 의미로 사용되고 있었고, ≪重刊老乞大≫에 이르러서 '本地' 또는 '本地方'으로 改修되었거나 예문의 5)번에서처럼 여전히 '地頭'가 사용되고 있음도 볼 수가 있다. 현재 중국의 일부 방언에서 '地頭'가 여전히 '本地方, 當地'의 의미로 쓰이고 있는 것은 ≪老乞大≫ 시대의 殘影일 것이다.

4. 可知

現代漢語에서 '可知'를 하나의 어휘로 쓰이기보다는 '可'는 일반적으로 副詞 또는 助動詞로서의 역할을 하고, '知' 動詞의 기능을 하고 있다고 본다면, '알 수 있다' 또는 '알 것이다' 등으로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老乞大≫ 시대에서의 '可知'는 副詞의 의미로서 '自然, 確實'[37]의 의미를 나타내거나 '怪不得, 難怪'[38] 또는 '當然, 果然'[39]등의 의미로 널리 쓰이고 있었다. ≪老乞大≫에서 '可知'의 用例는 모두 6번(아래 예문 1-6번)을 볼 수가 있다.

36) ≪漢語大詞典≫(漢語大詞典出版社, 1991).
37) 元・缺名, ≪勘金環≫一折: "我**可知**歡喜哩。俺無甚事, 後堂中飮酒去來。" 許少峯 主編, ≪近代漢語詞典≫(團結出版社, 1997), 636쪽.
38) ≪水滸全傳≫四九回: "原來却是樂和舅, **可知**尊顔和姆姆一般模樣。" 許少峯 主編, ≪近代漢語詞典≫(團結出版社, 1997), 636쪽.
39) ≪酷寒亭≫三【黃鐘尾】白: "**可知**有奸夫! 我踏開這門進去。" 劉堅・江藍生 主編, ≪元語言詞典≫(上海敎育出版社, 1998), 156쪽.

1) 恁那衆學生內中, 多少漢兒人? 多少高麗人? 漢兒高麗中半。裏頭也有頑的麼? 可知有頑的。≪原老≫ 6a
2) 你那衆學生內中, 多少漢兒人多少高麗人? 漢兒高麗中半。裏頭也有頑的麼? 可知有頑的。≪飜老≫上 7a
네 모·든 션·빈 듕·에, :언·메나 漢兒人이며 :언·메·나 高麗ㅅ:사·ᄅᆞᆷ·고? 漢兒·와 高麗 :반·이·라. 그 듕·에 ᄀᆞᆯ·외ᄂᆞ·니 잇ᄂᆞ·녀? ᄀᆞᆯ·외ᄂᆞ·니 잇·닷 :마·리·ᅀᅡ 니ᄅᆞ·려.[40]
3) 你那衆學生內中, 有多少中國人, 多少朝鮮人? 大概一半是中國人, 一半是朝鮮人。這裏頭也有皮頑的麼? 是內中也有皮頑的。≪重老≫上 6b
4) 賣的好弓有麼? 可知有, 無呵, 做甚麼買賣裏? ≪原老≫ 27b
5) 有賣的好弓麼? 可知有, 沒時做甚麼買賣裏? ≪飜老≫下 30b
·풀 :됴·ᄒᆞᆫ 활 잇ᄂᆞ·녀? 잇·닷 :마·리·ᅀᅡ 니ᄅᆞ·려, ·업·스면 므·슴 홍졍ᄒᆞ·리·오?[41]
6) 有賣的好弓麼? 客人, 我店內若沒有好弓, 做甚麼買賣? ≪重老≫下 29a
7) 這箇馬也行的好。可知有幾步慢竄。除了這箇馬, 別箇的都不好。≪飜老≫上 12a
·이 ᄆᆞᆯ·도 거·르·미 :됴·코·나. 그·리어·니 여·러 ·거·름곰 즈늑즈늑·호·ᄃᆡ :재·니·라. ·이 ᄆᆞᆯ :외·예, 년·근 :다:됴·티 아·니·타.
8) 客人們, 你這馬要賣麼? 可知我要賣裏。≪飜老≫上 69a
나·그·내·네, 네 이 ᄆᆞ·ᄅᆞᆯ ·풀오·져 ·ᄒᆞ·노·라? 그·리어·니 내 :풀오·져 ·ᄒᆞ·거·니.
9) 大哥, 你這羊賣麼? 可知賣裏。≪飜老≫下 21b
·큰형·님, 네 ·이 양·을 ·풀·다? 그·리어·니 ·풀·리·라.
10) 可知, 大哥你說的正是, 我那裏好的歹的不識, 則揀賤的買。≪飜老≫下 66b
그·리어·니, 형아 네 닐·오:미 :정·히 ·올·타, ·우·리 뎌·긔·ᄂᆞᆫ :됴·ᄒᆞᆫ 것 구·즌 것 모·르·고, :다·믄 :쳔·ᄒᆞᆫ 거·슬:골·와 ·사·ᄂᆞ·니.

≪原老≫와 ≪飜老≫에서 '可知'의 출현 횟수는 똑같은 6번이고, ≪重老≫에 이르러서는 '可知'의 語彙가 보이지 않게 된다(위의 용례 3번과 6번). 위의 用例에서 ≪飜老≫는 '可知'에 대하여 '그·리어·니(그러하다, 그렇다)'로 諺解하고 있음을 볼 수 있는데, '그·리어·니(그러하다, 그렇다)'로 諺解한 ≪飜老≫의 풀

40) 鄭光 監修, 國語史資料硏究會 譯註, ≪譯註飜譯老乞大≫(太學社, 1995年), 43쪽: "諺解 'ᄀᆞᆯ·외ᄂᆞ·니 잇·닷 :마·리·ᅀᅡ 니ᄅᆞ·려'는 직역하면 '말씀피우는 사람이 있다는 말이야 하겠습니까?'이지만, '당연히 있고 말구요'라는 속뜻을 갖는 반어적 표현이다."
41) 同前書, 191쪽: "諺解 '잇닷 마리ᅀᅡ 니ᄅᆞ려'는 '있다는 말이야 하겠습니까?'인데, 속뜻은 '있는 것이 당연하다'는 것이다."

www.kci.go.kr

이는 대체적으로 정확하다고 볼 수가 있다. 즉 위의 예문에서 쓰이고 있는 '可知'의 어휘를 現代漢語에서 같은 의미를 가지는 '當然', '確實', '果然' 등의 어휘를 써서 "當然有頑的", "有賣的好弓麽? 當然有", "這箇馬也行的好。確實有幾步慢竄(이 말의 걸음걸이가 느릿느릿 하지만, 실로 부드럽고 빠릅니다)", "你這馬要賣麽? 當然我要賣呢"등처럼 바꿔 놓는다면, 어색하지 않은 現代漢語가 되는 것이다.

5. 時·處·裏

5.1 時

≪老乞大≫에서 '時'字가 본래의 의미인 시간 등을 나타내는 名詞로 쓰이는 用例[42]보다는 助詞의 형태로 쓰이고 있는 횟수를 40회 이상을 찾아 볼 수가 있었고, ≪老乞大≫의 複文의 80%가 '時'字句가 될 만큼 '時'字의 쓰임이 빈번함을 볼 수가 있다.[43] 이러한 '時'字에 대하여 많은 先學들은 '詞組助詞'[44] 또는 '語助詞'[45] 아니면 '語氣詞'[46] 또는 '間歇之詞'[47]등의 用語로 '時'의 성격을 설명하고 있다. 여기서 주목해야할 것은 '間歇之詞'라는 用語이다. 張相의 ≪詩詞曲語辭匯釋≫(1991년)에서도 '語助辭'라는 용어를 써서 詞語를 풀이하는 경우는 자주 볼 수 있지만,[48] '時'字를 '語氣間歇之用, 猶呵或啊也'[49]이라고 풀이하고

42) 饑**時**得一口, 强如飽**時**得一斗, 我正饑渴**時**, 主人家, 這般與茶飯喫。≪飜老≫上 43b.
43) 兪光中・植田均, ≪近代漢語語法研究≫(學林出版社, 2000), 236쪽, 附注②: "據胡明揚先生(1984)統計, ≪老乞大≫復句有80%以上是用'時'字結尾的。"
44) 太田辰夫는 ≪中國語歷史文法≫(北京大學出版社, 1987), 318쪽: "助詞之中, 方在一般詞組後面(不管是不是出現在句末都沒有關係)的叫詞組助詞。僅僅用在句末的叫句末助詞。"
45) 劉堅・江藍生, ≪元語言詞典≫(上海教育出版社, 1998), 288쪽.
46) 龍潛庵 編著, ≪宋元語言詞典≫(上海辭書出版社 1985), 423쪽.
47) 顧學頡・王學奇, ≪元曲釋詞≫ 卷三(中國社會科學出版社, 1988), 351쪽: "用作語氣間歇之詞。猶現代漢語中'呵'或'啊'字。"
48) 예를 들어, "却, 語助辭, 用於動辭之後", "裏, 語助辭, 猶哩也", "者, 語助辭, 猶着也; 亦猶焉也" 등이다.

있음이다.

≪老乞大≫에서도 시간을 나타내는 의미보다는 助詞의 형태로 더 많이 쓰이고 있는 이러한 '時'字에 대하여 ≪老乞大集覽≫에서는 "古本에서의 '呵'를 '時'字로 바꾸거나 '便'자로 바꿨다"[50]라고 풀이하고 있음을 볼 수 있는데, 이것은 舊本에서 사용되었던 '呵'[51]字를 당시에 널리 쓰이고 있었던 新興의 '時'字로 새롭게 改修한 것으로 보인다.[52]

아래의 예문(1-6번)은 假設의 因果關係를 나타내는 古代漢語와 現代漢語로 이뤄진 複文인데, 어디에도 假定의 의미를 나타내는 關聯詞語 '若' 등의 語彙를 쓰고 있지는 않았지만, 우리는 아래의 글들을 '만약에 -이라면'이라고 글 풀이를 할 것이다. 關聯詞語를 쓰지 아니하고 假定의 複文등의 문장을 만들어낼 수 있는 이러한 현상은 漢語 자체 어떤 특징(부정문을 병렬하면 가정의 의미를 나타냄)과 語順의 排列 등에서 비롯되었을 것이다.

1) 人無遠慮, 必有近憂。≪論語・衛靈公≫
2) 無惻隱之心, 非人也; 無羞惡之心, 非人也。≪孟子・公孫丑≫
3) 種瓜得瓜; 種豆得豆。
4) 你是問道兒的嗎?…… 問道兒, 下驢來問呵。≪兒女英雄傳≫ 一四
5) 活着, 咱們一處活着; 不活着, 咱們一處化灰, 化烟。(曹雪芹)
   → 活啊, 咱們一起活啊; 死啊, 咱們一起死啊。
   → 活的話 咱們一起活着; 死的話, 咱們一起死去。
6) 早知如此, 我就不來了。
   → 要是早知道這樣的話, 我就不來了。
   → 早知道這樣, 所以我就沒有來。

위 예문의 複文에 있어, 조건을 나타내는 앞 문장과 결과를 나타내는 문장

49) 張相, ≪詩詞曲語辭匯釋≫上冊(中華書局, 1991), 335쪽.
50) ≪老乞大集覽≫ <單字解 5a>: "時 猶則也 古本用呵字 今本皆易用時字 或用便字"
51) 실제로 ≪原本老乞大≫에서 '呵'字의 출현 횟수는 총 90번이다.
52) 兪光中・植田均, ≪近代漢語語法研究≫(學林出版社, 2000), 233쪽: "'時'字句自五代開其端, 元明時其鼎盛期, 清代開始走向消亡。文體上看, 元明北系會話識者課本性質的≪老乞大≫、≪朴通事≫跟南系≪水滸傳≫均多見, 足見是當時南北共有的語法現象。"

www.kci.go.kr

사이에는 숨을 잠시 멈추는 그러한 읽음이 있어야만, 假定의 어투가 비교적 명확해질 수가 있는 것이다. 現代漢語에서는 문장을 끊어주는 콤마가 있지만, 古代漢語에서는 斷句가 되어있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끊어 읽음'은 더욱 중요했다고 본다. 만약 假定의 의미를 더욱 강화하거나 강조할 필요가 있을 경우, 예문 5, 6)번처럼 助詞 '啊', '-的話'를 쓰거나 접속사 '要是' 등을 사용하면 假定의 의미가 더욱 명확해지고 강조가 되는 것이다.

바로 끊어 읽어야할 자리에 '間歇之詞'와 같은 語氣助詞, 즉 '時'字가 그러한 역할을 대신하고 있다. 즉 古代漢語에서는 喜怒哀樂의 다양한 감정을 나타내는 語氣助詞가 발달되지 않았지만[53], 唐五代의 早期白話 形成期를 거쳐 早期白話 成熟期인 宋元時期에 이르러 '宋儒語錄, 禪家語錄, 話本小說' 등의 散文作品과 '宋詞, 南戲, 諸宮調, 元雜曲' 등의 韻文作品에서는 語氣助詞가 다양한 감정을 표현하고 전달하고자 하는 중요한 手段으로 다양하게 출현된다. 즉 단순한 '陳述, 疑問, 命令, 感歎' 등을 어감을 나타내는 語氣詞에서 '決斷, 疑惑, 驚愕, 諷刺, 嘲笑' 등의 다양하고 세밀한 감정을 표현해 내는 중요한 도구가 된 것이다. '時'字는 바로 그러한 시기에 쓰였던 語氣詞의 하나이고, 더욱 '假設性因果關係'나 '推斷性因果關係'의 文型을 만들어 주는 核心인 것이다.

語氣助詞 '呵'는 先秦時代에서도 감탄이나 사역 또는 문장에서 숨을 고르는 語氣助詞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54] 그러나 唐五代時期에는 語氣助詞 '後', '好' 등이 '呵'의 그러한 기능, 즉 문장 중간에서 숨을 고르거나(間歇) 假定의 의미를 나타내는 語氣助詞로 쓰이고 있었고, 宋元時期에는 다시 '呵'의 쓰임이 많아지면서 점차 語氣助詞 '呵'가 '後', '好'의 기능을 兼有하게 되고 또한 확대 응용되어 쓰이고 있었다고 한다.[55]

53) 秦漢以前 즉 中古以前의 文言語氣詞는 也, 矣, 耳, 焉, 乎, 邪, 耶, 哉, 歟 등으로, 이러한 文言語氣詞는 規範化되어 文言作品에서 천여 년 동안 쓰이고 있었다.

54) 俞光中・植田均, ≪近代漢語語法研究≫(學林出版社, 2000), 433-434쪽: "語氣助詞呵'先秦兩漢就有。文物出版社1976年出版的, 由馬王堆漢墓帛書整理小組校定的王堆帛書≪老子≫, 無論'甲本'還是'乙本', 出現的'呵'都是表示感歎、祈使或停頓的。例如: '俗人昭昭, 我獨若昏呵。俗人察察, 我獨悶悶呵。忽呵其若海, 恍呵其若無所止。'(甲本24頁) ……但這個'呵'以後却一度很少見用。例如≪祖堂集≫中除了'呵斥'的'呵'外, 并無語氣助詞'呵'。宋元以後于曲詞中及詞曲作家其他作品中又出現'呵', 或表感歎祈使, 或表停頓, 顯然是先秦兩漢'呵'的遺存。"

7) 我且歸家, 你而今休呵。(歐陽修詞)
8) 那日尊前, 秖今問有誰呵? (方千里詞)
9) 歸來呵, 休教獨自, 腸斷對團圓。(李之儀詞) 56)
10) 若是這般呵, 功名成就多時了。≪元曲選・謝天香≫ 第四折
11) 金印將來歸去呵, 紅日看看西下落。≪劉知遠諸宮調≫ 第11
12) 禮數不周休怪呵! ≪西廂記諸宮調≫ 卷三 57)

위의 例文은 宋元時代에 語氣助詞 '呵'의 用例이다. 語氣助詞 '呵'는 命令이나 禁止를 나타내거나(예문 7번), 또는 疑問이나 推測을(예문 8번), 아니면 假定의 문장에서(예문 9번, 10번), 그렇지 않으면 문장 중간에서 숨을 고르는 助詞의 역할을 하거나(예문 11번), 또는 文尾에서 감탄의 語氣助詞로(예문 12번) 쓰이고 있음을 볼 수 있다.

13) 玄德公也, 若你不來時, 萬事罷論: 若來**呵**, 便揷翅也飛不過這大江去。(元・朱凱) ≪黃鶴樓≫一折
14) 我則道別離**時**易, 誰承望相見**呵**難。(王愛山小令) ≪水仙子≫
15) 我有酒**後**寬洪海量, 沒酒**時**腹熱腸慌。涵芬本 ≪遇上皇≫
16) 你不去**時**, 與我叫過狗兒都管過來。≪錯立身≫ 戲文
17) 你若肯**時**肯, 不肯**時**罷手, 休把人空迤逗。(止軒小令) ≪醉扶歸≫

위의 예문 13, 14번은 '時'와 '呵'가 같은 이미를 가지면서 상호 호응되어 쓰이고 있는 用例이고, 예문 15번의 경우 또한 '後'와 '時'가 앞뒤에서 같은 의미로 쓰였고, 예문 16, 17번은 '時'가 語氣助詞로 쓰이고 있는 用例이다. 그러나 ≪老乞大≫에서는 '呵'字의 用例는 전혀 보이지 않고, '時'字의 用例만을 찾아볼 수가

55) 孫錫信, ≪近代漢語語氣詞≫(語文出版社, 1999), 49쪽: "'後'與'呵'的關係: '後'作語氣詞用最早蓋見於晚唐, 五代、宋、元時仍沿用, 明代已不見; '呵'見于宋代, 元代運用甚多。在表語氣間歇和假設方面'後'、'呵'相通。……雖音有差異, 但相去還不過遠, 很可能'呵'是'後'音變而代興的語氣詞。"

56) 예문 7)번에서 9)번까지는 太田辰夫 著, 蔣紹愚・徐昌華譯, ≪中國語歷史文法≫(北京大學出版社, 1987), 344쪽과 345쪽에서 재인용.

57) 예문 10)번에서 12)번까지는 孫錫信, ≪近代漢語語氣詞≫(語文出版社, 1999), 121쪽에서 재인용.

www.kci.go.kr

있다. 語氣助詞로서의 '時'字의 쓰임은 ≪老乞大≫ 시대 前後에서 널리 쓰이고 있었던 語氣助詞 '呵'와 함께 활발하게 쓰이고 있었던 當時 言語의 한 現象인 것이다.

18) 京裏喫食貴賤? 我那相識人曾說, 他來**時**, 八分銀子一斗粳米, 五分一斗小米, ……似這般**時**, 我**年時**在京裏來, 價錢都一般。咱們今夜那裏宿去? 咱們往前行的, 十里來田地裏, 有箇店子, 名喚瓦店。咱們到**時**, 或早或晚, 只[58]那裏宿去。若過去了**時**, 那邊有二十里地, 沒人家。旣那般**時**, 前不着[59]村, 後不着店, 咱們只投那裏宿去。≪飜老≫上9a－10a

:셔·울 머·글 거·슨 :노·던·가 흔·턴·가? 내 ·뎌 사·괴·논 :사·ᄅ·미 일·즉 닐·오·디, :제 올 저·긔, 여·듧 :푼 은·에 ᄒᆞᆫ ·말 :경·미·오, 닷 :분·에 ᄒᆞᆫ ·말 조 ·ᄡᅡ리·오, …… **·이·러·ᄐᆞᆺ ᄒᆞ·면**, ·내 ·니·건 ·히 :셔울 잇·다·니, ·갑·시 :다 ᄒᆞᆫ 가지로·다. ·우·리 오·ᄂᆞᆳ 바·미 어·듸 ·가 자·고 가·료? ·우·리 앏·푸·로 나·ᅀᅡ ·가, ·십 ·리 ·만 ᄊᆞ·해, ᄒᆞᆫ ·뎜·이 이·쇼·디, 일·호·믈 瓦店·이·라 ·ᄒᆞ·야 브르ᄂᆞ·니. **·우·리 가·면**, ·혹 이르거·나 ·혹 늣거·낫 듕·에, 그저 뎨 ·가 자·고 가·져. **·ᄒᆞ다·가 :디·나 가·면**, 뎌 녀·긔 :ᄉᆡ·십 :릿 ᄊᆞ·해, 人家ㅣ :업·스니·라. **ᄒᆞ·마 그·러ᄒᆞ·면**, 앏·푸·로 촌·애 다ᄃᆞᆮ·디 ·몯 ᄒᆞ·고, :뒤·후·로ᄂᆞᆫ :뎜·에다ᄃᆞᆮ·디 :몯 ᄒᆞ·리·니, ·우·리 그저 뎨 ·드·러자·고 가·져.

위의 예문 18)번은 ≪老乞大≫에서 '時'字가 얼마나 많이 쓰이고 있는지를 분명하게 잘 나타내주고 있는 事例라 할 수 있다. 예문 18)번에서 '時'字는 총 6회가 쓰이고 있는데, 그 중에 1회가 '他來時(:제 올 저·긔)'의 用例처럼 '時間'을 나타내는 본래의 의미로 쓰였고, 나머지는 4회는 '似這般時(·이·러·ᄐᆞᆺ ᄒᆞ·면)', '咱們到時(·우·리 가·면)', '若過去了時(·ᄒᆞ다·가 :디·나 가·면)', '旣那般時(ᄒᆞ·마 그·러ᄒᆞ·면)' 등에서처럼 假定이나 條件을 나타내는 語氣助詞로 쓰이고 있음을 볼 수가 있다.

≪老乞大≫에서 語氣助詞로서의 '時'字의 쓰임은 다음의 두 가지 형태로 크게

58) 只: 就。≪盛世恒言≫ 卷二一(團結出版社, 1997), 1494쪽: "師父若教弟子三年嚴限, 只在中原之地, 度三千餘人, 興俺道家。" 許少峯 主編, ≪近代漢語詞典≫(團結出版社, 1997).

59) 不着; 不得, 沒有。≪金瓶梅詞話≫ 九十回: "(來旺)作辭雪娥, 挑擔兒出門, 正是: 不着家神, 弄不得家鬼。" 許少峯 主編, ≪近代漢語詞典≫(團結出版社, 1997), 95쪽.

구분할 수가 있겠다. 하나는 아래의 예문 19－21)번에서처럼 접속사 '旣, 旣是'와 함께 '推論의 因果關係'를 나타내는 문형에서 쓰이고 있거나, 假定을 나타내는 접속사 '若'와 더불어 '假定의 因果關係'를 나타내는 문장에서 假定의 語氣助詞로 쓰이거나, 또는 '讓步의 轉換關係'를 나타내는 접속사 '雖然'과 함께 쓰이는 경우인데, 여기서의 '時'字는 단순히 語氣助詞로서 어감을 강조해주거나 조절해주는 역할을 하고 있다. 즉 아래 예문 22－24)번까지 用例에서 '時'字가 없다고 해도 본래의 뜻은 그대로 전달되기 때문이다.

19) 你旣賣馬去**時**, 咱們恰好做火伴去。≪飜老≫上 8b

20) 你旣往北京去**時**, 我是高麗人, 漢兒地面裏不慣行, 你好歹[60]拖帶[61]我, 做火伴去。≪飜老≫上 7b

21) 旣是好銀**時**, 咱先看了銀子寫契。≪飜老≫下 14a

22) 若背不過**時**, 教當直的學生背[62]起, 打三下。≪飜老≫上 3b

23) 是秆草好, 若是稻草**時**, 這頭口們多有不喫的。≪飜老≫上 18a

24) 那箇是劉淸甫酒館, 是我街坊[63], 怎麽不認的? 雖然這般時, 房子要實窄, 宿不得。≪飜老≫上 49a

그러나 또 다른 한 가지 用例는 '時'가 혼자서 假定이나 條件 등을 나타내는 어기조사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경우다. 즉 아래의 예문 25－28번처럼 語氣助詞 '時'가 존재함으로서 假定의 의미를 가지는 문장이 되는데, 만일 '時'字가 생략되고 없다면, 문장의 본뜻은 왜곡되거나 문장 자체가 성립될 수가 없게 되는 것이다. 예를 들어 예문 25)번의 '咱們到時'의 경우, '時'를 빼면 '條件關係'만을

60) 好歹: 無論如何。≪京本通俗小說・錯斬崔寧≫: "若是半路里追不着的時節, 直到他爹娘家中, 好歹追他轉來, 問個明白。" 龍潛庵 編著, ≪宋元語言詞典≫(上海辭書出版社, 1985), 379쪽.

61) 拖帶: 提携, 挈帶。≪西廂記≫ 一本三折【調笑令】白: "願俺姐姐早尋一個姊夫, 拖帶紅娘咱。" 劉堅・江藍生 主編, ≪元語言詞典≫(上海教育出版社, 1998), 326쪽.

62) 背: 把雙臂放在背後或擱在背後。如: 背着手; 反持兩手。≪水滸傳≫ 三七回: "但凡新人流配的人, 須先打一百殺威棒。左右, 與我捉去背起來!" ≪漢語大詞典≫(漢語大詞典出版社, 1991).

63) 街坊: 附近隣居。元・岳伯川, ≪鐵拐李≫三折: "孩兒是小李屠, 不幸患病死了, 今日三日也。心上還有些熱, 孩兒着衆街坊抬出來我看。" 許少峯 主編, ≪近代漢語詞典≫(團結出版社, 1997), 570쪽.

www.kci.go.kr

나타내고 있지만, '時'를 넣으면 '條件關係'를 내포하고는 있지만 '假定關係'가 主가 되는 것이다. 여기에다 假定의 의미를 나타내는 접속사 '若' 등이 호응되어 쓰인다면, 假定의 의미가 한 층 강조될 것이다.

25) 天可憐見, 身子安樂**時**, 再着五箇日頭到了。咱們到**時**, 那裏安下好? ≪飜老≫上 11a
하늘이 불쌍히 여기시고, 몸이 편안하다면, 한 5일정도면 도착하게 되겠지요. 우리가 도착하면, 어디서 묵어야 합니까?

26) 沒來由這般胡討價錢。我不是矯商量的。你說的是**時**, 兩三句話, 交易便成了。≪飜老≫下 10b
근거도 없이 이렇게 엉터리 가격을 부르는 것이요? 난 속임수로 흥정을 아니오. 당신의 말이 진실이라면 두세 마디에, 거래가 성사될 것이요.

27) 有賣的好弓麼? 可知有, 沒**時**做甚麼買賣裏? ≪飜老≫下 30b
파는 좋은 활이 있소? 몰론 있지요, 없다면 무슨 장사를 하겠소?

28) 這的有甚麼難, 你着一箇火伴跟我去來, 到那裏便了[64]。更不[65]**時**, 你都只這裏等候着, 我去稅了, 送將來與你。≪飜老≫ 下 18b
그게 뭐가 어렵겠소, 한 사람을 시켜 나랑 가게 하시오, 거기에 가면 될 것이요. 그렇지 않으면, 당신은 이곳에서 기다리고 있으시오, 내가 가서 세금을 지불하고, 가져다 당신에게 줄 것이오.

"你不來的時候, 我怎麼辦呢?"처럼 現代漢語에서도 '-的時候'가 假定文으로 쓰이고 있다. 이때의 '-的時候'는 시간을 나타내는 名詞가 아닌 語氣助詞로 봐야한다[66]. 앞에서 이미 제기한 바처럼 語氣助詞 '時'가 唐五代부터 假定의 의미를 나타내는 助詞로 쓰이고 있었고, 名詞 '時'가 '時候'처럼 두 음절의 어휘로 발전하였듯이, 假定을 나타내는 語氣助詞 '時'도 '時候'로 되었고, 발음상의 이유로 '的'가 보태지면서 현재에 쓰이고 있는 '的時候'의 형태가 되었다고 한다.[67]

64) 便了: 語末助詞, 有就是。≪水滸全傳≫ 十一回: "不若只是一怪, 推却事故, 發付他下山去便了, 免致後患。" 許少峯 主編, ≪近代漢語詞典≫(團結出版社, 1997), 61쪽.

65) 更不: 連詞。再不。關漢卿, ≪蝴蝶夢≫ 二孤白: "這三個小厮必有名諱, 更不呵, 也有個小名兒。" 藍立萱 編著, ≪關漢卿戲曲詞典≫(四川人民出版社, 1993), 92쪽.

66) '時'字가 假定의 의미로 쓰이는 경우, 假定文에는 시간적 요소가 있으므로 '時'字가 원래의 의미를 나타내고 있다는 오해를 쉽게 가지게 된다.

67) 太田辰夫 著, 蔣紹愚・徐昌華 譯, ≪中國語歷史文法≫(北京大學出版社, 1987), 330쪽: "的時候 早期白話中單用'時'。多和'若'等相呼應。……後來, 名詞的'時'成了復音節的'時候', 因此, 這種表假設的'時'也成了'時候', 因爲語調的關係, 就帶上'的', 成爲現在說的'的時候'。'若發了病的時候, 拏出來吃一丸。'(紅樓夢7)"

29) 每日學長, 將那頑學生, 師傅上稟[68]了。那般打了時, 只是[69]不怕。≪飜老≫上 7-a

30) 茶飯如何? 茶飯時, 我店裏家小, 新近出去了委實沒人整治, 你客人們自做飯喫。≪飜老≫上 68a

위의 예문 29, 30)번은 앞에서 논의한 '假定'이나 '條件' 등을 나타내는 의미로 쓰이지 않고, 말투를 조절해주는 語氣助詞 '啊'나 '呵', 소위 '停頓'의 '間歇詞'의 역할을 하고 있는 用例도 볼 수가 있다.

≪老乞大≫에서 많이 쓰여 지고 있었던 語氣助詞 '時'는 ≪重刊老乞大≫(1795年)에서는 '時'字가 語氣助詞로서 쓰이는 用例를 볼 수가 없다. ≪重刊老乞大≫에서는 '時'字 대신에 접속사 '若'를 써서 假定의 의미를 나타내고 있거나(아래 예문 31, 32번), '時'字를 아예 없애버리는 등의 수정이 이뤄졌다.

31) 我與你二兩銀, 肯時便賣, 你不肯**時**, 赶將去罷。休要只說二兩, 你再添五錢, 賣與你。添不得, 肯**時**肯, 不肯**時**罷。≪飜老≫下 22a
→ 我給你二兩銀, 若肯便賣, **若**不肯你就赶了去罷。你不要只說二兩, **若**再添五錢, 我就賣與你了。添不得, 肯賣不肯賣憑你罷。≪重老≫下 21b

32) 這銀子雖是看了, 眞假我不識。你記認着, 久後使不得**時**, 我則問牙家換。≪飜老≫下 14b
→ 這銀子雖是看了, 眞假我不認得。你記認着, 久後**若**使不得, 我只問牙家換。≪重老≫下 14a

33) 你這馬和布子, 到北京賣了**時**, 却買些甚麼貨物, 廻還高麗地面裏賣去? ≪飜老≫上 12b
→ 你這馬與布, 到北京賣了, 却買些甚麼貨物, 回到朝鮮去賣? ≪重老≫上 11b

34) 你且出去, 等一會再來。旣他羊市角頭去**時**, 又不遠, 我則這裏等。≪飜老≫下 1b

68) 稟: 對上報告。≪古今小說・裴晉公義還原配≫: "私下囑咐從人道: 開船兩日後, 方可稟知主人" ≪漢語大詞典≫(漢語大詞典出版社, 1991)

69) 只是: 就是。≪西遊記≫ 46回: "我師父乃至誠君子 ……說不會, 只是不會, 君子家, 豈有謬乎?" ≪漢語大詞典≫(漢語大詞典出版社, 1991)

www.kci.go.kr

→ 你且在外頭, 等一會再來。他旣往羊市角頭去, 路又不遠, 我只這裏等他罷。≪重老≫下 1b

5.2 裏

助詞로 쓰이는 '裏'字의 用例를 ≪老乞大≫에서는 '時'字 다음으로 많이 볼 수 있다. ≪老乞大集覽≫에서는 場所 등을 나타내는 名詞적인 용법 외에도 '裏'가 語助詞로서 쓰이고 있음을 설명하고 있다.[70] 아래 例文(1-3번)은 ≪老乞大≫에서 자주 볼 수 있는 '裏'字 本然의 用例이다.

1) 大哥, 你從那裏來? ≪飜老≫上 1a
2) 衆學生的姓名, 都這般寫着, 一箇簽筒兒裏盛着。≪飜老≫上 4a
3) 你說的是, 我也心裏這般想着。≪飜老≫上 11a

≪老乞大≫에서 語氣助詞의 형태로 쓰이고 있는 '裏'의 쓰임은 現代漢語에서 동작의 진행이나 상태의 지속을 나타내는 어기조사 '呢'와 흡사하다. 이에 太田辰夫는 '里', '裏' 등의 處所를 나타내는 語彙에서 동작의 存在를 나타내는 語氣助詞 '呢'의 根源으로 보기도 한다.[71]

≪老乞大集覽≫에서 '裏'는 '里', '哩', '俚'와 通用되고 있다고 풀이하고 있으나, ≪老乞大≫에서는 '裏'字의 用例만 보일뿐 '里'[72], '哩', '俚'등이 쓰인 用例는 볼 수가 없다. 아마도 ≪老乞大≫ 시대에는 '裏'字 용례만이 쓰이고 있었을 뿐,

70) ≪老乞大集覽≫: "裏: 內也, 裏頭, 內裏。又闕內亦曰裏頭, 又曰內裏。又處也, 這裏, 那裏。又語助, 這裏, 那裏, 有裏。通作里俚哩。" <單子解: 2a-1>
71) 太田辰夫 著, 蔣紹愚・徐昌華 譯, ≪中國語歷史文法≫(北京大學出版社, 1987), 350쪽: "呢, 作爲敍實的功能, 是表示在現在動作的存在, 不變化, 相當于時間副詞'還'、'正在'等。它的來源是'里'、'裏'等表示處所的詞, 從唐五代就有一些。" 그러나 呂叔湘은 ≪釋景德傳燈錄中'在'、'着'二助詞≫에서 '在裏→裏→里→哩→呢'에서 그 根源을 설명하고 있다.
72) ≪老乞大≫에서 '里'字의 쓰임은 자주 볼 수 있으나, 이러한 '里'字의 쓰임은 語助詞가 아닌 거리의 單位를 나타내는 名詞로 쓰인 경우다. 例: "咱們往前行的, 十**里**來田地裏, 有箇店子, 名喚瓦店。"(≪飜老≫上 10a)

'里', '哩', '俚' 등의 助詞는 아직 널리 통용되지 않고 있었기 때문일 수도 있는 것이다.[73] 아래의 例文(4-6번)은 ≪老乞大≫에서 쓰이고 있었던 語氣助詞 '裏'가 1795年경에 改修된 ≪重刊老乞大≫에서는 보이지 않고 있음을 볼 수 있다.

4) 咱們往前行的, 十里來田地**裏**, 有箇店子, 名喚瓦店。≪飜老≫上 10a
→ 咱們往前走, 十多里路, 有箇店, 名喚瓦店。≪重老≫下 9a
5) 有賣的好弓麽? 可知有, 沒時做甚麽買賣**裏**? ≪飜老≫下 30b
→ 有賣的好弓麽? 客人, 我店內若沒有好弓, 做甚麽買賣? ≪重老≫下 29a
6) 你外頭還有火伴麽? 有一箇看行李, 就放馬**裏**。≪飜老≫上 41a
→ 你們外頭還有火伴麽? 有一箇在那裏, 看行李放馬了。≪重老≫上 38b

≪老乞大≫에서 '裏'字의 쓰임은 매우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다. 그 첫 번째 쓰임은 '裏'字 本然의 의미, 즉 '外'의 相對的인 의미를 나타내는 경우로, 現代漢語에서의 쓰임과 같다 하겠다. 아래의 예문 7, 8)번과 같이 '方位'을 나타내는 경우, 예문 9)번처럼 指代詞 '這, 那, 哪' 등과 결합하여 '處所'를 나타내는 경우와 일정한 '範圍'를 나타내는 경우다. 그러나 예문 11, 12)번의 '馬市裏', '直沽裏'에서처럼, 굳이 '裏'를 쓰지 않아도 되는 경우에도 ≪老乞大≫에서는 흔히 볼 수 있는 用例라 하겠다.

7) 拜揖, 大哥, 這店**裏**賣毛施布的高麗客人李舍有麽? ≪飜老≫下 1a
8) 請, 請, **裏**頭坐的。≪飜老≫下 2a
9) 看家的有麽? 有箇後生來, 這裏不見, 敢出去了。≪飜老≫下 2a
10) 那鼻子**裏**流膿。≪飜老≫下 19a
11) 咱們往順城門官店裏下[74]去來, 那裏就便投[75]馬市**裏**去却近些。≪飜老≫上 11a

73) 太田辰夫 著, 蔣紹愚・徐昌華譯, ≪中國語歷史文法≫(北京大學出版社, 1987), 350-351쪽: "'哩'是否在宋元時使用還是疑問。在宋代, 用'裏'的例子很多, 而'哩'只在不太可靠的資料中能見到。……'哩'在元曲中用得很多, 但在元刊本裏用'里', '哩'是不是元代原有的寫法, 還須要研究。"
74) 下: 歇宿, 收留。≪警世通言≫ 卷二十四: "想你這個模樣子, 誰家下你?" 高文達 主編, ≪近代漢語詞典≫(智識出版社, 1992), 847쪽.
75) 投: 朝, 向。≪三國演義≫ 一回: "劉焉令鄒靖將兵五千, 同玄德、關、張, 投青州來。" 許少峯 主編, ≪近代漢語詞典≫(團結出版社, 1997), 1143쪽.

www.kci.go.kr

12) 五月裏到高唐, 收起綿絹, 到直沽**裏**上船過海, 十月裏到王京, 投到年終, 貨物都賣了。≪飜老≫上 15a

그리고 ≪老乞大≫에서는 '裏'字가 時間을 나타내는 의미로 쓰이는 용례를 많이 찾아 볼 수 있다(아래 예문 16-21번). '裏'字가 '時', '時候' 등의 뜻으로 쓰이고 있었던 용례는 宋·元時代에 다른 文獻에서도 흔히 볼 수가 있다(예문 13-15번). 물론 現代漢語에서도 그러한 용법을 찾을 수가 있다(예문 22번).

13) 病**裏**逢春, 四海無家, 一身寄客。≪董西廂≫ 卷一
14) 妾身年少**裏**, 父母俱傾棄。宋≪張協壯元≫ 戲文十六出
15) 如今這搗子病得重, 趁他狼狽裏, 便好下手。≪水滸全傳≫二五回
16) 我這裏前年六月**裏**, 有一箇客人, 纏帶裏裝着一卷紙, 腰裏拴着, 在路旁樹底下歇凉睡。≪飜老≫上 27b
17) 勞困**裏**休飲水, 等喫一和草時飲。≪飜老≫上 24b
18) 這般黑地**裏**, 東厠裏難去, 咱們則這後園裏去。≪飜老≫上 37a
19) 我這裏今年夏裏天旱了, 秋**裏**水滂了, 田禾不收的。因此上, 我旋糴旋喫裏, 那裏有糴的米。≪飜老≫上 53a
20) 這早晚黑地**裏**, 出入不便當。≪飜老≫上 55a
21) 你兩箇先放馬去, 到半夜**裏**, 我兩箇却替你去。≪飜老≫上 56a
22) 許多人家門對着門, 白日**裏**, 日頭的影子正正的照到街心不動時, 街上半天還無一個人過身。沈從文≪街≫

앞에서 논의한 '裏'字는 場所나 方位 또는 時間 등을 나타내는 名詞적인 용법으로 쓰이고 있는 용례를 중심으로 살펴본 것이다.

아래의 用例들은 ≪老乞大≫에서는 '裏'字가 語氣助詞로 쓰이고 있는 경우를 살펴본 것이다. ≪老乞大≫에서의 語氣助詞로서 '裏'字는 現代漢語의 語氣助詞 '呢'字의 쓰임과 비슷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 먼저 語氣助詞로서 '裏'字는 진술문에서 某種의 狀態를 설명하거나 또는 動作의 持續 그리고 動作의 進行을 나타내고 있다.

23) 價錢如常, 人參正缺着**裏**。≪飜老≫下 2b

24) 你外頭還有火伴麽, 有一箇看行李, 就放馬裏。≪飜老≫上 42a
25) 我這裏今年夏裏天旱了, 秋裏水滂了, 田禾不收的。因此上, 我旋糴旋[76]喫裏, 那裏有糴的米? ≪飜老≫上 53a
26) 你称如何? 我的是官称, 放着印子**裏**, 誰敢使私称? ≪飜老≫下 57b
27) 這布都是地頭織來的, 我又不曾剪了稍子, 兩頭放着印記**裏**。≪飜老≫下 62a

앞의 예문 23-25)번은 動作의 進行狀態를 나타내고 있는데, 특히 23)번은 進行과 持續을 나타내는 副詞 '正'과 '着'이 同時에 호응되어 쓰이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예문 26, 27)번도 時態助詞 '着'와 호응되어 동작의 持續狀態를 나타내고 있다. 아래의 예문 28-34번)은 語氣助詞 '裏'가 副詞 '還'와 '不曾', '沒', '不'와 호응이 되어 상태가 변화가 없음을 나타내고 있다.

28) 高些箇射, 休小了, 低射時竄到了。…… 你看, 早**裏**! 一會兒再添一枝箭時咱們滿了。≪飜老≫ 下37a
29) 你都喫了着, 家裏還有飯**裏**。≪飜老≫上 42b
30) 我這馬們不曾飲水**裏**, 等一會控到時飲去。≪飜老≫上 24a
31) 咱們舍着草料, 好生喂幾日發落, 也不遲**裏**。≪飜老≫上 71a
32) 如今爲沒有賣的, 五錢一斤家也沒處尋**裏**。≪飜老≫下 2b
33) 我從早起喫了些飯, 到這早晚, 不曾喫飯**裏**, 好生的飢了。≪飜老≫上 53b
34) 教人看了面子上的角, 背子上鋪的筋, 商量了價錢, 然後樺了也不遲**裏**。≪飜老≫下 31b

이상의 用例(28-34번)는 語氣助詞 '裏'가 단독으로 또는 다른 詞語와 호응하여 狀態의 持續과 進行 혹은 變化가 없음을 명확히 보여주는 用例이다. ≪老乞大≫에서의 語氣助詞로서 '裏'字 또한 다른 문헌에서도 쓰이고 있었던 것처럼 약간의 과장적인 어투를 나타내는 문장에서 많이 쓰이고 있음을 볼 수가 있다.[77]

76) 旋~旋~: 連用于兩個動詞之前, 表示一邊這樣, 一邊又那樣。唐·章碣, ≪陪浙西王侍郎夜宴≫: "深鎖雷門宴上才, 旋看歌舞旋傳杯 。" ≪漢語大詞典≫(漢語大詞典出版社, 1991).
77) 曹廣順, ≪近代漢語助詞≫(語文出版社, 1995), 177쪽: "唐五代裏'裏'的用例比'在'要少, 從表達的語義看, '在'和'裏'都是'祛疑樹信'的'申言之詞', 表達肯定的語。……元明之際'裏'仍以用于肯定的例子居多, 但所表達的肯定語氣, 較之宋代更豊富了, 有感歎、有肯定某種事物現象的存在、有表示停頓、列擧等多種。疑問語氣的'裏'較少, 但例子中也有表示選擇、反詰、是非等多種句式。"

www.kci.go.kr

아래의 예문(35－39번)에서와 같이, 어떠한 사실을 분명히 드러내야 하기 때문에 자연히 과장의 말투가 필요한데, '裏'가 이러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본다.

35) 客人們, 你這馬要賣麽? 可知我要賣裏。≪飜老≫上 70a
손님! 말을 파시게요? 암 팔고말구요.
36) 大哥, 你這羊賣麽? 可知賣裏。≪飜老≫下 21b
형씨! 이 염소를 파십니까? 물론 팔지요.
37) 好麽? 好麽? 買賣稱意麽? 托着哥哥們福陰裏, 也有些利錢。≪飜老≫下 65b
안녕 하십니까? 장사는 잘됩니까? 아 형님의 염려 덕택으로, 이익을 좀 봤습니다.
38) 休那的說, 偏我出外時, 頂着房子走, 也要投人家, 尋飯喫裏。≪飜老≫上 44a
그런 말씀 마세요, 제가 출타 한다고 해서, 집을 이고 다니겠습니까? 나 역시 남의 집에 묵어야 하고, 밥도 얻어먹어야 한답니다.
39) 有賣的好弓麽? 可知有, 沒時做甚麽買賣**裏**? ≪飜老≫下 30b
팔려고 내놓은 좋은 활이 있습니까? 당연히 있지요! 없다면 무슨 장사를 한단 말이요?

現代漢語에서는 語氣助詞 '呢'는 "你怎麽一點兒也不知道呢?"처럼 의문을 나타내는 助詞로 쓰이고 있지만, ≪老乞大≫에서는 '裏'가 의문문에서 쓰이는 用例는 볼 수가 없었고, 반문을 나타내는 의문문에서 딱 한 번 쓰인 용례(예문 39번)를 찾을 수 있었다.[78] ≪老乞大≫에서 語氣助詞 '裏'가 의문을 나타내거나 의문문에서 쓰이지 않았던 것은, 唐代에서 元代까지의 '裏'字의 쓰임은 대체적으로 '과장의 말투로 사실을 서술'하는 용도로 쓰이고 있었고, 의문문이나 의문의 어기조사로는 잘 쓰이지 않았기 때문일 것이다.

78) 曹廣順, ≪近代漢語助詞≫(語文出版社, 1995), 178쪽: "'在'和'裏'的功能, 都近似于現代漢語語氣助詞'呢', 早期, 它們只用于肯定語氣, 宋代, 都有用于疑問句的用例, 但直到元明, 它們的功能都是以表達肯定爲主, 表達疑問語氣的, 只是個別用例。"

5.3 處

≪老乞大≫에서는 '處'字의 쓰임은 아래의 용례(아래 예문 1－5번)에서와 같이 '場所'나 '所在' 등을 나타내거나, 다른 詞語와 함께 應用되어 쓰이는 경우를 흔히 볼 수 있다.

1) 但是遼東去的客人們, 別**處**不下, 都在那裏安下。≪飜老≫上 11－b
2) 主人家點箇燈來, 我整理睡**處**。≪飜老≫上 25a
3) 火伴中間, 自家**能處**休說, 休自夸, 別人**落處**休笑。≪飜老≫下 43b
4) 我是高麗人, 都不會炒肉。 有甚麽**難處**? ≪飜老≫上 21a
5) 這裏定害, 有甚麽**定害處**。≪飜老≫上 43b

그러나 여기서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은 '裏'字가 '行爲나 動作 發生의 狀態 또는 時間'을 나타내는 의미로 쓰이고 있는 경우이다. 漢語에서 場所를 나타내는 詞語가 時間을 나타내는 의미로 쓰이는 경우를 흔히 볼 수 있다. 아래 예문의 6－8)번은 다른 문헌에서 볼 수 있는 '處'字가 '－時候', '－情況下'등의 의미로 쓰이고 있는 用例이고, 예문 9)번은 ≪老乞大≫에서 딱 하나 찾아낸 '處'가 '時'의 의미로 쓰이고 있는 用例다. 물론 諺解를 보면 '장소'로 풀이하고 있지만, "咱們做奴婢的人, 跟着官人們行走, 他們在這裏那裏下馬的地方, 把官人的馬牽來拴着"라고 해석되는 것보다 "咱們做奴婢的人, 跟着官人們行走, 他們在這裏那裏下馬的時候, 把官人的馬牽來拴着"라고 해석하는 것이 漢語의 語法과 논리에 맞을 것이다.

6) 門開處, 早有人出來。≪水滸傳≫ 73回
7) 行者正然偸看處, 忽聽後文內有脚步之聲。≪西遊記≫ 23回
8) 行處莫教高聲道, 恐驚林外野人家。≪宦門子弟錯立身≫ 三出
9) 咱們做奴婢的人, 跟着官人們行時, 這裏那裏下馬處, 將官人的馬牽着, 好生拴着。≪飜老≫下 45a
·우리 좋 도의여 잇논 :사ᄅᆞ·문, 노·연·네 조·차 돈·닐 ·제, 여·긔 뎌·긔 ᄆᆞᆯ브·린 ·ᄃᆡ, 노·여·늬 ᄆᆞ·ᄅᆞᆯ 잇·거다·가, :됴·히 ᄆᆡ·오.

www.kci.go.kr

'處'字의 이와 같은 쓰임은 ≪朴通事≫에서도 딱 한 차례(아래 예문 10번) 볼 수 있는데, 몰론 諺解에서는 '處'를 장소로 풀이하고 있지만, "你待買甚麽本事的馬? 我要(買)打圍時候騎的快走的馬"라고 풀이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을까 한다. 이 외에도 ≪朴通事≫에는 '處'가 어기조사 '呵', '呢'[79]로 쓰이고 있는 용례(아래 예문 11번)를 딱 한 차례 볼 수 있는데, 諺解에서는 역시 '므슴 터뒨 곳이 이시리오'라고 해석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10) 你待買甚麽本事的馬? 我要打圍[80]**處**騎的快走的馬。≪朴通事諺解≫上 55a[81]
네 므슴 지고 조엣물을 사고져 ᄒᆞᄂᆞᆫ다, 내 산영ᄒᆞᄂᆞᆫ 고ᄃᆡ를 잘ᄃᆞᆫᄂᆞᆫ 물을 사고져 ᄒᆞ노라.

11) 五錢銀子買一个羊腔子, 做人情去, 饋他補生日, 有甚么遲**處**? 常言道: "有心拜節, 寒食不遲。≪朴通事諺解≫上 59a
닷 돈 은에 ᄒᆞᆫ 양의 얼골을 사, 人情을 삼아 가, ᄃᆡ를 주어 生日을 다느림 ᄒᆞ면, 므슴 터뒨 곳이 이시리오: 常言에 닐오ᄃᆡ: 節에 拜ᄒᆞᆯ ᄆᆞᄆᆞᆷ이 이시면, 寒食 아라도 더듸 아니타 ᄒᆞᄂᆞ니라.

6. 結論

'利家'라는 어휘는 ≪原本老乞大≫나 ≪老乞大≫에서 딱 한차례의 用例에서 보일뿐 ≪朴通事≫에서도 '利家'의 用例는 보이지 않지만, 現代漢語에서 '外行'이라는 의미를 가지는 '利家'는 ≪老乞大≫ 시대에서는 '力把', '力笨', '劣把'와 '戾家', '利巴', '力巴', '力把', '劣把' 등으로 쓰여 지고 있었습니다.

現代漢語에서의 '田地'는 일반적으로 '논밭', '경작지'를 뜻하고 있지만, ≪原本老乞大≫ 시대에서는 '地方', '處所' 등의 의미로 주로 사용되었다가 ≪老乞大≫에 이르러서 '地面'이 그 역할을 대신하고 ≪重刊老乞大≫에서는 '地方'으로 교체되었다.

'地頭'를 現代中國語에서는 '田地的兩頭(밭 양끝머리)'의 의미로 사용되고 있지만, 그러나 ≪老乞大≫ 시대에서는 '地頭'는 주로 '本地方', '當地'의 의미로 쓰이고 있었다. ≪重刊老乞大≫에서 볼 수가 없었다.

≪老乞大≫에서 '時'字가 본래의 의미인 시간 등을 나타내는 名詞로 쓰이는 用例보다는 假定 등의 語助詞의 형태로 많이 쓰이고 있었음인데, 이러한 형태의 쓰임은 당시의 時流인 것이다.

≪老乞大≫에서 語氣助詞의 형태로 쓰이고 있는 '裏'의 쓰임은 現代漢語에서 동작의 진행이나 상태의 지속을 나타내는 어기조사 '呢'와 흡사하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의문문에서는 '裏'字의 用例를 볼 수 없었는데, '裏'가 의문문에서 쓰이지 않는 이러한 현상은 다른 문헌에서도 같은 현상인 것이다.

이상으로 ≪老乞大≫ 系列書에서 볼 수 있는 '利家, 田地, 地面, 地頭, 可知, 時, 裏, 處' 등의 語彙들을 선택하여 當時의 다른 文獻과 先學들의 연구 성과를 토대로 하여 고찰한바, ≪老乞大≫에서만 特異하게 쓰이고 있는 語法의 形態를 취하고 있거나 특정적인 일부의 지역에서만 한정적으로 쓰이고 있는 용례는 볼 수가 없었다.

단지 몇 개의 語彙에 대한 論證이고 앞으로 이러한 연구가 계속되어야 하겠지만, 잠정적으로 ≪老乞大≫ 系列書가 ≪老乞大≫ 시대를 代表하는 當時의 口語이고, 漢語의 變遷과 發展過程을 硏究하는 資料로서 큰 가치가 있다고 할 것이다. 현재의 우리가 700년의 時空을 넘어 그 당시의 언어를 정확하게 이해할 수 없겠지만, 崔世珍도 그러했듯이 최대한 접근을 해보자는 것이다.

79) 顧學頡・王學奇, ≪元曲釋詞≫ 卷二(中國社會科學出版社, 1984), 288쪽: "≪拜月亭≫二【門蝦蟆】白: 父親不知, 本人於您孩兒有恩處。…… 以上各'處'字, 均爲語氣詞, 相當現代漢語的'呵'、'呢'之類。"

80) 打圍: 打獵。

81) ≪朴通事諺解≫, 奎章閣叢書第八(京城帝國大學法文學部), 影印本.

www.kci.go.kr

< 參考文獻 >

原典類

≪朴通事新釋·朴通事新釋諺解≫, 서울대학교 규장각.

≪老乞大、朴通事諺解≫, 亞細亞文化史(影印本), 1973.

原本≪老乞大≫, 김영사.

鄭 光 監修, 國語史資料研究會 譯註, ≪譯註飜譯老乞大≫, 太學社, 1995.

鄭 光, 역주해제≪原本老乞大≫, 太學社, 1995.

_____, ≪역주번역노걸대와 노걸대언해≫, 신구문화사, 2006.

汪維輝, ≪朝鮮時代漢語教科書叢刊≫ (全四冊), 中華書局, 2005.

王 鍈·曾明德 著, ≪詩詞曲語辭集釋≫, 語文出版社, 1991.

蔣禮鴻 主編, ≪敦煌文獻語言詞典≫, 杭州大學出版社, 1994.

詞典類

劉 堅·江藍生主編, ≪元語言詞典≫, 上海教育出版社, 1998.

張 相, ≪詩詞曲語辭匯釋≫, 中華書局, 1991.

顧學頡·王學奇, ≪元曲釋詞≫ 卷一, 中國社會科學出版社, 1983.

_____, ≪元曲釋詞≫ 卷二, 中國社會科學出版社, 1984.

_____, ≪元曲釋詞≫ 卷三, 中國社會科學出版社, 1988.

_____, ≪元曲釋詞≫ 卷四, 中國社會科學出版社, 1990.

劉 堅·江藍生 主編, ≪元語言詞典≫, 上海教育出版社, 1998.

_____, ≪宋語言詞典≫, 上海教育出版社, 1999.

許少峯 主編, ≪近代漢語詞典≫, 團結出版社, 1997.

龍潛庵 編著, ≪宋元語言詞典≫, 上海辭書出版社, 1985.

高文達 主編, ≪近代漢語詞典≫, 智識出版社, 1992.

吳士勛 王東明 主編, ≪宋元明清百部小說詞語大辭典≫, 陝西教育出版社, 1992.

呂叔湘 主編, ≪現代漢語八百詞≫增訂本, 商務印書館, 1999.

呂叔湘, ≪中國文法要略≫, 商務印書館, 1982.

張惠英, ≪金瓶梅俚俗難詞解≫, 社會科學文獻出版社, 1993.

≪漢語大詞典≫, 漢語大詞典出版社, 1991.

王 鍈·曾明德, ≪詩詞曲語辭集釋≫ 語文出版社, 1991.

王 鍈, ≪詩詞曲語辭例釋≫, 中和書局(增訂本), 1991.

蔣禮鴻 主編, ≪敦煌文獻語言詞典≫, 杭州大學出版社, 1994.

蔣禮鴻 著, ≪敦煌變文字義通釋≫, 上海古籍出版社, 1997.

劉昌惇, ≪李朝語辭典≫, 延世大學校出版部, 2005.

藍立萇 編著, ≪關漢卿戲曲詞典≫, 四川人民出版社, 1993.

李法白·劉鏡芙 編著, ≪水滸語詞詞典≫, 上海辭書出版社, 1989.

著書類

呂叔湘 著, 江藍生 補, ≪近代漢語指代詞≫, 學林出版社, 1985.

胡安竹等 編, ≪近代漢語研究≫, 商務印書館, 1992.

馮春田, ≪近代漢語語法研究≫, 山東教育出版社, 2000.

梁伍鎭, ≪老乞大朴通事研究≫, 太學社, 1998.

太田辰夫 著, 蔣紹愚·徐昌華 譯, ≪中國語歷史文法≫, 北京大學出版社, 1987.

香坂順一 著, 江藍生·白維國 譯, ≪白話語匯研究≫, 中華書局, 1997.

江藍生, ≪近代漢語探源≫, 商務印書館, 2000.

兪光中·植田均, ≪近代漢語語法研究≫, 學林出版社, 2000.

孫錫信, ≪近代漢語語氣詞≫, 語文出版社, 1999.

董志翹·蔡鏡浩, ≪中古虛詞語法例釋≫, 吉林教育出版社, 1994.

曹廣順, ≪近代漢語助詞≫, 語文出版社, 1995.

王雲路·方一新, ≪中古漢語語詞例釋≫, 吉林教育出版社, 1992.

胡竹安 等編, ≪近代漢語研究≫, 商務印書館, 1992.

北京大學中文系1955·1957級語言班編, ≪現代漢語虛詞例釋≫, 商務印書館, 1982.

房玉清 著, ≪實用漢語語法≫, 北京語言學院出版社, 1996.

呂叔湘 主編, ≪現代漢語八百詞≫(增訂本), 商務印書館, 1999年.

蔣紹愚·曹廣順 主編, ≪近代漢語語法史研究綜述≫, 商務印書館, 2005.

蔣紹愚, ≪近代漢語研究概要≫, 北京大學出版社, 2005.

李泰洙, ≪老乞大四種板本語言研究≫, 語文出版社, 2003.

傅雨賢 等著, ≪現代漢語介詞研究≫, 中山大學出版社, 1997.

呂叔湘, ≪漢語語法論文集≫(增訂本), 商務印書館, 1984.

論文類

楊聯陞, <老乞大朴通事裏的語法語彙>, ≪東方學志≫, 1955.

맹주억, <老乞大諺解 諸板本에 반영된 통사규칙 난점의 유형>, ≪중국학연구≫ 42집.

www.kci.go.kr

李陸禾, <董西廂與王西廂裏的語氣助詞用例考>, ≪中國語文論叢≫, 第36輯, 2008.
_____, <近代漢語語氣詞用例考(上)>, ≪中國語文論譯叢刊≫, 第22輯, 2008.
_____, <老乞大語彙考>, ≪中國語文論叢≫, 第39輯, 2008.

< 中文提要 >

日本學者志村良治在其著作≪中國中世語法史研究≫(江藍生、白維國譯)裏對≪老乞大≫、≪朴通事≫的語言與某些語法的現像而言, 說出了: "兩書的語言主要通用于北方以大都爲中心的山東、河北、遼寧等靠海的地區。除了'知他' '因此上'等說法之外, 也出現了過去漢語裏沒有見過的所謂蒙文直譯體的語法。"的見解, 幷擧出十一個個別的用例。因此, 曾在≪老乞大語彙考≫一文裏, 選出"知他"、"因此上"、"人名+上"、"怎麽"、"根底"等語彙, 已論證之。現以"≪老乞大≫語彙考(二)"爲題目, 又選出"利家、田地、地面、地頭、可知、時、裏、處"等語彙, 參照當時的其他文獻裏的所用的用例與一些語法現像, 考證出≪老乞大≫裏所記載的語言爲當時活生生的口語, 幷不是在特定的地區使用的限定性的語言, 更沒有所謂"過去漢語裏沒有見過的語法現像"。≪老乞大≫纔是當時"漢兒地面"的"漢兒言語"的代表。

關鍵詞: 老乞大、利家、田地、地面、地頭、可知、時、裏、處

원고접수일	심사일정	1차수정	게재확정	출 간
2009.2.28	2009.3.20	2009.4.3	2009.4.10	2009.4.30

www.kci.go.kr